

죽들도 마찬가지라네. 고독은 사회적 불행으로부터 인간을 멀리 떨어트려 놓음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그를 자연의 행복으로 되돌려놓는 게야. 수많은 편견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 한복판에서, 영혼은 계속되는 혼란에 빠져 있다네. 야망으로 가득 차 비참한 사회에서 서로서로를 예측시키려는 구성원들의 견해를, 요란스럽게 범석이며 모순을 일으키는 그 수천 가지의 견해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 되새기는 거야. 그러나 고독 속에서라면, 영혼은 자길 괴롭히는 그런 이질적인 환상들을 버려버린다네. 자기 자신과, 자연과, 조물주에 대한 질박한 감정을 되찾게 되는 게지. 이와 마찬가지로 급류를 이루어 논밭을 황폐화시키던 흙탕물은 원래 흐르던 방향에서 빗거나 어느 작은 분지로 쏟아지듯 흘러들면서, 진흙은 강바닥 깊숙한 곳에다가 버려두고, 최초의 청아함을 되찾고 다시 투명해지니, 그렇게 본디 자신이 있던 기슭으로 돌아가 대지의 녹음과 창공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네. 고독은 육체의 조화뿐 아니라 영혼의 조화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게지. 인생이라는 행로를 가장 멀리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그래, 계급적으로 고독한 자들 중에 나오는 게야. 인도의 브라만처럼 말이야. 요컨대 나는 이 세상 자체가 그 안에서의 행복을 위해서는 고독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네. 그만큼 내적 고독을 스스로 만들어내 우리 자신의 견해는 빠져나가지 않고, 남의 의견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떤 감정یدن